

한국의 근대성과 신여성의 병리*

권희영**

-
- I. 머리말
 - II. 조선의 전통적 가족에 있어서의 여성
 - III. 근대화와 여성들의 태도변화
 - IV. 근대화과정에서의 증상과 병리
 - V.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 사회와 문화의 근대화과정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아마도 여성의 근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근대화라고 할 때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다른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여성의 개인성의 자각, 성적 존재로서의 정체성 확보의 과정이라는 정의에서 출발한다

여기에서 개인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흔히 사용하는 자아의 개념을 주체가 개별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체가 자기의 인격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회라고 하는 대타자에 의하여 주체에게 부여되는 위치라는 의미에서의 상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체가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지로서의 자아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주체와 충돌하고 상호 변형되면서 문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보는 편이 오

* 2001년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과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역사학

히려 타당할 것이다.

일제시기의 신여성성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분석의 대상이 될 만큼 흥미로운 존재이다. 전통적인 가족관이 변형되고 붕괴되며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는 이론들이 유입되면서 여성들의 역할과 태도, 자기 이미지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급속한 환경의 변화는 주체들의 적응과정에 일종의 부조화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한국의 여성들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가면서 자신들을 ‘신여성’으로 변화시켜왔고¹⁾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부조화의 증상(symptome)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본고의 과제이다. 외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이에 대한 심적 대응이 긴박할수록 거기에 동반되는 부조화가 여러 가지 양상으로 출현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신여성으로의 변화과정에 나타났는가 하는 점을 살피려는 것이다.

이러한 탐구를 통하여 우리는 일제시기의 신여성들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여 갔으며 어떠한 점에서 실패하였고 어떤 심적 태도와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우리는 신여성에 관계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 즉 범죄, 정사, 이혼 등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세대로 등장하여 근대성을 출현하는 계기가 된 신여성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근본적으로는 신여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람의 방식이 한국의 현실적 조건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서구나 일본의 부르조아적 생활을 동경하는데서 나오는 것으로서 이 같은 신여성의 욕망을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하여 결국 신여성적 이미지는 거울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상징적으로 수용될 수 있고 대타자에 의하여 인정받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신여성들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서의 신여성의 이미지는 현실적으로 지극한 갈등을 야기 시켰고 주체가 소화할 수 없는 비극적인 방식으로 신여성을 몰고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20~30년대 새로운 세대로 등장하여 근대성을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현실적인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신

1) 이러한 양상에 대하여는 참고 「1920-30년대 신여성과 모더니티의 문제」, 『사회와 역사』 54 집 (1998)에서 논의하였다.

여성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본고의 과제인 것이다.

II. 조선의 전통적 가족에 있어서의 여성

낙원인가 족쇄인가? 조선의 전통적 가족은 양 극단적인 이미지 사이에 놓여 있다. 유교적인 예에 의하여 규율되는 가정은 전통적으로 유교문명을 수용하고 있던 한국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낙원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유교 문명에 있어서 여성들은 사회활동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그렇다하여 열등감에 차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성들의 열등감을 조장한 것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여성들을 사회로 불러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전통에 대한 담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교육서로 역할 하였던 『女範』(明 王節婦 著)의 예를 들어보자. 흔히들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 땅이라는 것에 그녀는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위치가 덜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母儀先於父訓 慈教嚴於義方”²⁾ 이라고 말 하였던 것이다. 단지 문제는 남는다. 조선 유교문명에서 그토록 안정과 평화를 주며 어머니에 부여하였던 자리가 그 어머니의 위치가 아닌 단지 여성만의 위치라고 할 때는 그 자리는 모호하고 불안정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조선의 유교문명에서 이 같은 고정된 위치가 없는 여성은 일탈된 여성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 일탈의 범주에 들어가는 여성은 사회의 이단자로 소외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교문화에서의 여성은 구체적으로 사회에 의하여 어떻게 규정되는가? 유교에서는 여성을 보통 女-母-婦라는 범주로 이해하였다. 이중에서 婦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로 유교의 여성지배적 관념이 강화되어 표현된 글자이지만 母(女)는 기원적으로는 오히려 道와 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³⁾ 母는 기르는 자로서 근원이기에 유교적 관념도 부를 이상화시키면서도 이 모를 종속적인 위치에 완벽하게 가두어두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모는 부와 같은 반열로서 여

2) 정순목 편저, 『한국유학교육자료집해 1』, 학문사 (1983), 1492쪽.

3) 소병(노승현 역), 『노자와 성』, 문학동네 (2000), 298쪽

성들이 이상으로 삼는 것 역시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음양론적 사고에 입각해있던 유교사회에서는 밖에서는 남자들이 권력을 행사하지만 안에서는 여자들이 권력을 행사하였다. 안과 밖은 각기 그 고유한 위치가 있는 것이다. 남자아이의 성장이 父-師-君을 이상화하면서 사회에 주어진 위치를 지키는 일을 하였던 반면에 여자 아이는 이 같은 부성적 메타포대신에 孝-貞의 덕을 갖춘 女-母-婦의 모성적 메타포가 주어졌다.

조선에서 남녀관계를 규정하는 궁극적인 시니피앙은 양과 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과 음은 완벽하게 남녀관계를 규정짓는다. 양과 음으로 표상될 수 있기에 남녀의 관계는 지배관계로 설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조화의 관계이다. 그러나 단순한 조화가 아니다. 서로 같은 존재의 동등한 조화라기 보다는 양이 음을 포괄하는 관계로서의 조화인 것이다.⁴⁾

그렇다면 이 같은 인식 하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여왔는가?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규방에만 머물러있던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상대방을 보지도 못하고 부모의 뜻에 의하여 시집을 가고 첫날에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여 왔던 처녀성을 허물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른바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할 때 사랑이 상징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동력이라고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하여 상징의 장벽을 넘어섰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사랑은 성을 직접적으로 충족할 수 없을 때에 만들어진다. 성관계의 부재 혹은 성관계의 장애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사랑이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위적인 장벽의 설치야말로 사랑이 가능케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전통시대의 여성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랑을 믿고 상징의 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인가? 『옥원재합기연』의 신방치르기는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⁵⁾ 성은 포기될 수 있다는 혹은 가능한 한 멀리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방식을

4) 서경덕은 이 같은 관계를 “陽全而 陰半陽”이라고 하였다 『화담집』 이대 한국여성연구소 편 『한국여성관계자료집.근세편(문집)』, 이대 출판부 (1990), 333쪽에서 인용.

5) 이 자료를 소개하여 주고 어려운 초서를 읽기 쉽게 활자화하여 제공하여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임치균 교수(고전소설 전공)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확인하면서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난다. 성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성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성관계는 모든 이론과 상징 도덕이 관여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그 모든 정치들이 갖추어진 가운데 시련을 통과해야만 한다. 바로 이 같은 시련의 과정을 젊은 남녀들은 견디어내야만 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사랑은 생겨나는 것이다. 결혼을 하고 직접 성관계를 가지기까지의 집중적인 이 며칠이야말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장치인 것이다. 이 며칠은 현대의 남녀가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간의 데이트를 통하여 말하자면 직접적인 성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 시련의 과정을 견디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성관계는 직접적으로 충족되기 보다는 상호모색과 진출과 후퇴를 반복하며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성관계를 포기할 수 있는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시대의 여성들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첫날을 보내었다고 생각은 옳지 않다. 적어도 이념형에 있어서 이들은 충분한 사랑의 검증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고 성관계에 진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후의 가정생활을 해나가면서 여성은 아내에서 어머니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온전히 가정을 내적으로 책임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여성에게 어떠한 시니피앙을 부과하고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가 산출되는가 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우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 조선 시대의 몇몇 뛰어난 사대부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아이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어머니였다. 이 어머니들은 그 자신 뛰어난 인물이지만 그리고 그 때문에 그의 부모들이 여자로 태어났음을 한탄할 정도의 인물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신이 밖으로 나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음양의 시니피앙이 가지는 의미가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어머니는 그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그 자체로서 드러내고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몇 가지 유형의 여인들이 구별된다 할 것이다. 여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기녀들에 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대부의 여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남편에 대한 존중과 자녀에 대한 교육과 봉사였다. 아버지는 시니피앙이다 중심적인

시니피앙이다. 이 아버지가 부재하였을 때라도 마치 아버지가 살아있는 듯이 어머니는 이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를 통하여 자식들에 대하여 훈계할 수 있었다. 김만중의 어머니인 윤씨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며 신사임당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조선의 유교문화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근대문화와 대비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근대문화의 특색은 여자를 어머니의 위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위치로 보는 것이다. 남녀평등으로 뒷받침되는 체계가 이를 지탱하여 준다. 남녀평등의 근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는 법적·정치적 평등일 수 있고 또한 경제적인 평등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근대의 개인주의적 이상에 맞게 여자를 개인이라는 존재로 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즉 남녀의 성은 개인이라는 개념 하에 그 차이를 상실한다. 개인은 그러한 면에서 성의 차별을 없이는 근대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유별의 세계가 사라진 것이다. 공간의 배치가 이 차별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던 혹은 때로는 시간조차도 이 유별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던 질서가 무너지고 차별의 질서는 그 흔적이 없어진 것이다. 물론 어느 면에서나 이 차별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근대적 공간에서 차별은 유별이라는 차원에서 존재한다. 그 단적인 예가 화장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별의 공간은 극단적으로 축소되어서 각 인은 언제나 성의 차별이 전제되지 않는 개인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것이 근대의 신화인 것이다.

이 유별의 붕괴는 처음에는 유별의 상징적 측면에서 시작되어서 점차 그 근원적인 점에까지 이르고 있다. 즉 성 자체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별의 상징적 측면이란 법이나 제도, 경제와 같은 영역에 해당할 것이며 이제는 실제적인 측면 즉 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영역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근대에 들어와서 여성의 등장이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성, 이는 근대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의미에서 이를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여성도 남성과 같다는 데에서 시작하여 여성도 욕망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이 무엇을 욕망한다는 것인가? 남성이 남근적 향락을 중심으로 하여 자기의 존재를 실존케 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성도 남근적 향락 거기에 나아가서 추가적 향락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실존을 구현한다는 것이다.⁶⁾ 만일 여성의 향락이 남근적 향락이라고 할 때는 여성의 향락은 남성

향락의 모방일 것이다. 이는 근대적 여성향락의 한 방향이었다. 만일 여성적 향락이 남근적 향락의 차원만이 아니라 추가적 향락이라고 할 때는 이는 여성향락의 특수성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여성들이 욕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추가적 향락을 욕망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 지점에서 페미니즘의 문제가 제기된다.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남근적 향락에 여자도 동일하게 참여한다는 차원이라면 이는 페미니즘의 첫 단계일 것이다. 현재의 단계에서의 페미니즘이란 이 차원이 아니라 즉 남근적 향락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바로 이 추가적 향락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것이다. 이 추가적 향락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의 주체화가 이루어질 때 남근적 향락의 질서는 붕괴되는가? 추가적 향락의 주체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근적 향락의 배제와 붕괴인가? 아니면 남근적 향락과 공존하는 추가적 향락인가? 추가적 향락이 남근적 향락을 대체하려 한다면 즉 추가적 향락의 일반화를 시도하려 한다면 이는 여성적 향락의 남근화를 초래할 것이다. 거기에서 남근적 보편성과 관계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여성적 향락은 남근적 향락을 붕괴시키면서 남근적 향락으로 스스로 전화하게 될 것이다. 추가적 향락이 그야말로 추가를 의미한다면 여성적 향락은 남근적 향락을 붕괴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남근적 향락으로 향하는 추가적 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이 볼 수 없는 중요한 점은 바로 그들이 여성적 향락을 주장하면서 남근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해방의 힘을 주장하면서 그들은 이 해방의 기치를 걸고 그들이 남근적 권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게 된다.

추가적 향락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여성의 “전체가 아니라”(pas-tout)는 전체, 추가적 향락은 추가라는 것 그리고 이 추가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상징화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족하였던 점은 바로 이것이다. 즉 추가적 향락의 상징화가 부족하였던 것이다. 여성의 개인화 혹은 여성의 등장을 통하여 인간의 사회가 긍정적으로 진전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

6) 여성의 향락에 대한 논의는 J.Lacan의 *Le Seminaire, XX, Paris: Seuil, 1975, p.69*. 여기에서 라캉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여자에게만, 즉 존재하지 않으면서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 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향락이 있다. 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향락은 여자 자신도 모르지만 경험한다는 것을 여자는 알고 있다. 물론 그것이 도달할 때 여자는 그 향락을 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자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로 이 추가적 향락의 추가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인 것이다. 남근적 권력의 횡포를 막는 일은 남근적 권력의 예외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의 일반화는 또 다른 남근권력의 생산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미묘한 불균형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때문인 것이다.

III. 근대화와 여성들의 태도변화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지식인들은 전통적인 여성도덕을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과거에 숭상되던 도덕이 이제는 여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족쇄로 규정되고 과거는 총체적 부정의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그 대신에 자유연애와 결혼 그리고 성적 정체성으로서의 여성의 개별적인 존재의 등장을 주장하는 담론들이 점차 그 세를 얻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담론의 변화는 동시에 전통적 유교문명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가질 수 있었던 사회적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사랑의 담론이다. 근대적 담론은 연애와 결혼은 사랑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가정은 타락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며 이 사랑이 식을 때는 언제나 가정을 해체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근대에 유행하던 담론이었다. 안정적인 제도로서 기능하여야 할 가정이 사랑이라는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전제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때 이는 여성들이(그리고 남성들도) 향유할 수 심리적 안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다.

전통사회는 사랑 즉 성애의 감정이 항상 일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에 전통사회는 남자들의 성애에 대하여 그것을 가정이라는 틀 안에 묶어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사회는 여성들의 경우에 그 성애를 가정 내에 그리고 단 한번의 결혼에 묶어두려고 하였다. 그것이 바로 예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정절과 열녀가 강조된 것은 바로 이 예에 바탕을 두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근대적 사고는 사랑의 영원성을 믿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사랑의 영

원성이 존재하지 않기에 그것에 위반되는 결혼을 개인성을 파괴하면서까지 유지하느니 보다는 언제나 다시 새 출발하는 것이, 즉 제도적 완성과 안정성을 거부하는 대신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찾아 나서도록 하는 편이 더 낫다는 사고가 있었던 것이다.

둘째 사회참여의 담론이다. 민족주의 혹은 사회주의와 연결되는 정치화과정 및 노동력의 동원을 위한 목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인정하고 이를 고취시키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출현하게 되었다. 물론 이 같은 여성의 사회참여의 담론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의 정치참여 및 행정과 관리에 대한 참여였다. 산업화 이후에는 역시 노동시장에서의 동등한 기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이미 근대 이전부터도 농업노동에 여성들은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근대에 부각되기 시작한 여성의 참여는 역시 부르조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근대 자체가 부르조아적 요구의 일반화와 유리되지 않는 것과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애의 담론이다. 근대의 주된 특징의 하나가 성적 담론의 확산이라고 볼 때 이는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폭스는 부르조아의 시대가 성의 모랄에 있어서는 위선이 그 특징이라고 하였다.⁷⁾ 절대주의 시대의 “관능에 대한 방종하고 극히 세련된 승배”⁸⁾와는 대비되는 것이었다. 이 말은 한국에도 적용되는 듯 보인다. 양반 주도의 사회에서 부르조아 주도의 사회로 바뀌게 될 때 혹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근대적인 지식인, 문인, 지주, 자본가 등 근대적인 부르조아지와 관련된 계층으로 사회적 담론의 중심이 이동하고 이들의 삶이 사회의 문화적 이상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상황의 변동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할 일이 있다. 일단 성은 전 시대에 비하여 위선이라고 할 정도로 훨씬 더 절제된 양상이 강조되었다고 하는 점을 그 특징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근대는 가족중심의 사회구성을 이상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가족중심의 사회구성은 성담론에 있어서도 훨씬 더 도덕적인 질서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 양반들의 성욕이 방종과 타락으로 규정되었으며 새로운 부부중심의 성관계를 유일시하는 풍조가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근대화의 효과로 말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⁹⁾

7) 에두아르트 폭스(이기웅, 박종만 역), 『풍속의 역사: 풍속과 사회』 까치(1997), 154 쪽

8) 앞의 책, 152 쪽

그러나 동시에 성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요소들이 발전되었다. 일본에 의하여 도입된 유곽의 발달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를 일본이 촉진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일본문화는 오히려 유곽을 구획지은 것이 아닌가? 한국에서 흩어져있던 것을 구획지은 것이다. 즉 구분과 공인이란 방식 자체를 성의 타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느 사회이든 간에 성의 개방을 지향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은 기본적으로 그 욕구의 충족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것이며 단지 사람들은 그로부터 벗어나는 꿈을 꾸는 것이다.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꿈꾸기가 이루어지는 내용일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일 것이다

1930년대 보다 개방적인 형태로 보다 욕망을 노출시키는 형태로 꿈꾸기가 시작되었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사회체제의 억압과 식민지적 통제의 다른 얼굴로 성은 그같이 노골적으로 억압되거나 통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 이전의 시기에서처럼은 성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성을 드러내는 일은 이 시기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는 여성적 정절을 강조하는 즉 모성 강조의 경향, 사회적인 성의 보수화경향의 다른 면을 드러낸다 1930 년대의 성이 사회주의진영에서나 자유주의적 진영에서도 보수성을 띄어가고 있음은 콜론타이즘의 쇠퇴나, 파시스트적 성정책, 자유주의 국가들의 사회정책에서도 엿볼 수 있다.¹⁰⁾ 성의 자유를 구가하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1920년대는 잠깐 개화한 시기였다.

1930년대 문학이나 잡지 등에서 등장한 성개방을 사회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를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었다기 보다는 꿈꾸기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국에서의 1930년대의 특징은 성의 보수화가 진행되면서도 이것이 반매춘운동 등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군위안부 등에서 볼 수 있듯 국가적인 조직이 매춘을 관리하였다. 이는 물론 일본적인 전통인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세속적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한 것이다. 오히려 성의 문제에 있어서 유미적 내지는 탐미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시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국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사문화

9) 권희영, 『한국사와 정신분석』, 집문당(2001), 129~153 쪽

11) *Histoire des femmes: Françoise Thebaud(dir), Le Xxe siecle*, Paris: Plon, 1992.

의 용장과 거대는 남근적 위용의 과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의 출현은 1920년대에 등장하게된 근대의 '신여성'들을 갈등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이미 도입된 새로운 여성 주체로서의 신여성들은 그들의 욕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가족과 사회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남근적 문화의 강화는 남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을 한정하는 것이며, 전통적으로 형성된 어머니 여성에서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주체가 인정받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문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것은 전통사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상징의 체계가 붕괴되면서 대타자의 역할을 하였던 유교적인 도덕이 더 이상 남성들에게 군자를 요구하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이러한 군자와 동반하는 여성-어머니를 요구하는 데에도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전통적인 교육체제가 붕괴되었다고 해서 전통에서 형성되었던 심적 태도가 일시적으로 붕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주체들을 주체들이 복종하는 대타자의 위치에서 기능하기가 어려웠다. 그 사이에 많은 부정적인 현상의 출현은 불가피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증상이 될 것이다. 새로이 욕망하는 주체로 등장한 여성 주체들은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고 반항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반항의 주 대상은 바로 같은 여성이면서 이전의 전통적 가치를 가지고 있던 시어머니였다. 또한 이들은 또한 남성들의 무절제한 성애추구로 고통을 받아야 하였다. 근대적 가정이 무엇보다 사랑에 근거를 둔다면, 가정의 안정을 위하여 사랑의 확보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이 여성들에게는 더욱 절실하였다. 아직 여성들은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직 남성들과 동등한 힘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가정의 근대적인 조건과 여성들의 현실은 더욱 더 일부일처적 도덕을 요구하게 하였다. 여성들의 요구가 근대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 반면, 이들의 요구를 실현시킬 사회적 여건은 아직 도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것이 한국의 신여성들이 가진 거울상의 비극이었다. 거울상이란 라깡의 정의에 의하면 타자의 이미지이다. 근대적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은 근대적 담론이 생산하는 효과로서의 서구나 미국, 일본의 부르조아 여성을 거울로 삼게 되었다. 많은 신여성들이 동경한 것은 파리나 뉴욕, 동경이었고 서양식의 저택과 피아노,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낭만적인 감정 속에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유 같은 것이었다.

이들 신여성이 서양의 부르조아 여성을 거울로 삼음으로 하여 이들의 심중에는 강한 경쟁의식과, 선망, 그리고 절망과 우울증이 나타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미지는 곧 조선의 상징적인 질서와 충돌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이들의 거울상이 조선의 상징계와 충돌한다는 사실만은 아니다. 이 충돌을 거치면서 이것이 조선의 신여성들에게 어떻게 외상으로 작용하는 지를 살피는 일이다. 그리고 이 외상이 조선의 전통으로 치부되던 상징들 그 질서를 어떤 식으로 재구성하도록 하고 그리하여 어떻게 이것에 대처하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일이 될 것이다.

IV. 근대화과정에서의 증상과 병리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 중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역시 연애나 결혼, 이혼 등 에 관련된 즉 성과 가정의 생활에 관련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여성문제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이 같은 성의 담론의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신여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담론 중의 정치적인 것 예컨대 참정권 같은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또한 여성의 직업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거론되었고 또한 여성의 교육에 관한 문제도 거론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던 것은 연애와 결혼, 이혼 같은 문제들이었고 다음으로는 양육과 같은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신여성담론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기본적으로는 여성이 감당하여야 하는 결혼, 육아, 가사 등의 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논의를 전개하여 보기로 하자. 우선 주목할만한 일은 조선에서의 이혼율이 1923년에 3%였던 것이 그 다음 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평균 5%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1920년대 이전에 비하여는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표 1> 최근 10년간의 혼인 이혼수

	이혼건수	조선인 결혼수/이혼율
1923	8797	258167/3.4%
1924	7041	154809/4.5%
1925	7607	171066/4.4%
1926	6988	167409/4.2%
1927	6991	174653/4.0%
1928	8218	191816/4.3%
1929	8021	192723/4.2%
1930	8894	197563/4.5%
1931	7896	182715/4.3%
1932	6548	128258/5.1%

자료: 『新女性』 1933.9, 54~57 쪽

좀더 상세한 자료를 찾아보면 좋은 일이겠으나 여기서 일단은 이 정도의 논의로 끝을 맺는다.

다음으로 혼인연령을 볼 때 우리의 세대와는 불과 100년도 떨어져있지 않은 시기이지만 이 시기의 혼인연령이 지나치게 오늘날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1932년경의 조선인 남자 혼인연령

연령	혼인수	백분비
17세미만	18470	14.4
17~19	39316	30.7
20~24	42358	33.0
25~29	16914	13.2
30~34	5916	4.6
35~39	2661	2.1
40~49	1836	1.4
50~59	627	0.5
60이상	160	0.1
계	128258	100

자료: 『新女性』 1933.9, 54~57 쪽

<표 3> 1932년경의 조선인 여자 혼인연령

연령	혼인수	백분비
15세미만	12575	9.9
15~19	85878	67.0
20~24	21827	17.0
25~29	4785	3.7
30~34	1718	1.3
35~39	767	0.6
40~49	512	0.4
50~59	156	0.1
60이상	40	0
계	128258	100

자료: 『新女性』 1933.9, 54~57 쪽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이지만 1932년경에 17세 미만에 결혼하는 남성들이 무려 14.4%를 차지하였다. 남자의 경우 20세미만에 결혼하는 수가 거의 45.1%에 달하였다. 여자의 경우에는 이 경향이 더 심하여서 77%가 20세 미만에 결혼을 하였으며 그중 15세미만에 결혼하는 인구도 무려 10% 가까이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당시 한국사회에서 조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줌과 동시에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할지라도 이른 연령에 결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준다. 바로 이 같은 조건은 조선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여 준다. 여자의 경우에는 당시의 사춘기가 15세 경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성인구의 10% 정도는 사춘기가 되기도 전에 즉 초경을 하기도 전에 시집을 갔다는 말이 되며 또 설사 15세 이후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20세 미만에 대다수가 결혼을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고유한 사춘기를 충분히 가지기도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당대의 조선은 청년층이 극히 얇았다고 할 수 있다. 사춘기는 오래 계속될 수 없었으며 불과 5년 미만인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그대로 당대의 신여성들의 문제에 반영이 되었다. 남성들의 경우는 약 5세정도가 많게 여성들과 결혼을 하였으며 이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경제문제를 담당하

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결혼연령이나 특히 여성들의 결혼연령을 보면 이들이 독자적인 경제기반을 가지고 결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즉 이들은 결혼문제에 있어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혼비용 자체도 의지하여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의 생활 자체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었으므로 전적으로 시집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의 결혼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의 도시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며 도시적인 삶은 이 같은 조혼과는 그리 잘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근대적인 삶의 조건이 도입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상도 변하였다는 사실, 구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한 지붕 밑에서 사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 이러한 것들은 1920~30 년대의 여성의 삶에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근본적인 상황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근대화과정에서의 증상과 병리라는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증상이라는 것은 주체의 욕망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방식으로 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의 욕망이 억압되어 있기에 그것은 증상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체라는 것은 여성 주체라는 것이 1920년대 신여성과 더불어 출현하였으며 이 같은 여성 주체는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 말과 행동은 새로움으로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따라서 그 욕망이 표현의 수단을 획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와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그 출현을 억압당하고 그 억압된 욕망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에 이른다. 우리는 이것을 증상으로서의 출현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증상은 신여성에게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면 신여성과 구여성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상징체계의 충돌로 인하여 빚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증상의 출현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시대적 병리의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특별히 개인적인 양상으로만 이해하지 않는 이유는 병리의 존재양상이 그 문화의 역사성과 관계 있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다음에 잡지 신여성에 소개된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시대적 증상과 병리를

이해하여 보도록 하자.

사례 1. 경기도 파주의 이순덕은 18세에 경성여자고보를 마치고 다시 여상보수와 1년을 마치고 파주군청에 근무하였다 그곳에서 공립학교 훈도로 있는 강모라는 24세 청년과 연애하였다. 집에서는 신랑이 재산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다고 하여 결혼에 반대한다. 이들은 부모 몰래 서울로 와서 결혼을 하였다. 이들은 직업을 얻기 위하여 함남 나남으로 갔다. 강군은 직업을 구하였으나 이순덕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였고 거기에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대문 부인병원에 입원하여 출산하였다. 순덕은 유모를 구한다하고는 유모에게 아이를 유지하였다. 경찰 조사결과 아이는 다시 순덕에게 돌려지고 순덕은 부모에게 호소하고 부모는 할 수 없이 낙원동에 집을 얻어주고 양육비를 지원해주었다.¹¹⁾

사례 2. 연애이상주의자이다 라고 하던 H라는 청년이다. 결혼이 여의치 않자 결국 시골의 구수에게로 결혼하기로 하고 “리상적 결혼이니 무엇이니 하여 결국엔 구하지도 못할 행복을 구하느라고 공연히 귀중한 시간을 허송하는 이 보다는 차라리 아버지의 희망대로 집의 형편을 살피어서 결혼문제는 한사무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고 결혼을 결심하였다 이상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특수사정이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였다.¹²⁾

사례 3. 평남 현준이란 25세 된 청년은 동경의 음악학교를 마치고 평양 정진여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가 김영춘이란 15세 된 학생을 유혹하여 연애관계를 가진 다음 임신 6월의 그녀를 데리고 상경 여관에 유숙하다가 돈이 궁하여 주점에 작부로 팔아버리려다가 1년형을 받았다.¹³⁾

위에 든 사례들은 자유연애라는 이상을 가지고 행동하였으나 결국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못하고 이상이 단지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혹은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조차도 감당할 수 없었던 신여성 혹은 신청년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례 1에

11) 『新女性』, 1931.4, 77쪽.

12) 『新女性』, 1931.11, 76쪽.

13) 『新女性』, 1933, 139 쪽

서 중등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서의 이순덕이 새로운 가치기준에 의하여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랑의 감정에 의하여 결혼을 하였지만 결국은 그녀가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바로 그 경제력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한 여성에서 그녀는 그녀가 출산한 아기를 유기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과연 이 신여성이 무엇을 원한 것인가? 그녀가 근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인 연애와 결혼은 그녀의 도덕적인 선택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여성의 행동과 선택에서 대타자의 부재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전통시대에 여성에게 주어진 위치로서의 어머니의 위치를 그녀는 벗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대타자의 부름에 서지 않으며 그 대신 이미지를 따라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으로 살아간 것이다. 이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에게 어머니의 위치, 도덕적인 책임, 부모의 명령에의 순종 등은 부차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바로 이 같은 사례에서 우리는 신여성들이 전통적인 규범을 근본적으로 벗어나 있음을 알게된다. 그 대신 욕망하는 여성으로서의 여성-주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 3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지만 마찬가지로의 시대적 병리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 현준이라는 청년에게도 역시 전통적인 구속으로 작용하는 도덕적인 책임은 작용하지 않는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유혹하고 그 학생을 임신시키고 돈이 궁하게 되자 그녀를 작부로 팔기까지 한다. 이 역시 욕망하는 주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유로운 연애, 도덕적인 책임이 부가되지 않는 성관계, 범죄를 감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자세, 이러한 것들이 사례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타자의 부재에 직면한 신교육을 받은 청년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례들을 종합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신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이 청년들의 행동양식과 태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대타자는 그 모습이 약화되어 있다. 청년들이 복종해야 하는 대상은 부모도 아니고, 전통적인 군자의 상도 아니게 되었다. 복종해야 할 그러한 전통적인 대상들이 사라짐으로써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떠한 새로운 근대적인 가치와 상징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들은 바로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양식을 선택한다. 그 같은 증상은 물론 이 청년들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양상의 사회적 출현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근대로의 이행기에 대타자의 부재로서 나타나는 병리

적인 양상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신청년들은 남녀 모두 스스로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을 정도의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그리하여 자유연애는 단지 유행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며 허위의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당시의 조선사회에서 상당수 존재하였다.¹⁴⁾

이제 이러한 욕망하는 주체의 등장엔 전통적인 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하였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과연 이러한 새로운 주체의 등장엔 대하여 전통적인 주체는 어떠한 양상으로 이러한 새로운 주체와 대응하였는가? 그로부터 도출되는 증상과 그의 병리학적 이해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에 몇 개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분석을 통하여 이 문제를 이해하도록 하자.

***사례 1.** 판순의 예 : 그는 전라도 출신으로 경성에 와서 여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계모를 얻었다. 가세는 점차 기울어갔다. 가난한 중에 그의 부친은 인근 김부자 집에서 천원을 빌려 상환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판순을 소실로 주면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판순은 자신을 희생하려고 결심하고 소실로 간다 하였다. 천 원짜리 빚 문서가 와서 불에 살려진 후 혼인날 아침에 판순은 소나무가지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¹⁵⁾

***사례 2.** 윤영숙은 1924년 3월에 S 여고를 졸업하였다. 학교를 마치고 곧 결혼하였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은 2년도 안되어 파경으로 끝났다. 윤은 유복자로 출생하여 부모형제 없이 성장하였다. 어머니는 윤이 세 살 되던 해에 사망하였고 그 후 그녀는 조부 조모의 손에 성장하였다. 그 뒤에 조부 집에 하숙을 하던 보통학교 교원 C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 후에 할머니와 남편의 의사충돌이 빈번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결혼 후 6개월 정도 지나 태도가 달라져

14) 1932년 중의 자살건수는 2407명, 그 중 조선사람이 2228명 남자가 1236명 여자가 992명 길에 버린 기아는 32년 중 379건 그 중 1건은 일본인 기아 중 남자는 162명 여자는 217명 일본아이는 여아. 『新女性』, 1933.9, 57쪽.

15) 『新女性』, 1924.10, 43쪽.

서 사소한 일에도 남편에게 역정을 내곤하였다. 날마다 다툼이 있게 된 것이다. 할머니의 성격이 고약한 것이 문제였다. 할머니는 며느리도 둘이나 잡아 버리고 세 번 째로 얻으신 것이 윤의 모친이었다. 또 윤의 부친도 친자가 아니고 양자였다. 결혼 때도 윤의 남편을 친정 쪽의 조카뻘로 삼으려다가 할아버지의 반대로 현 남편을 사위로 삼은 것이다. 할머니는 남편을 쫓아내고 조카를 데려오려고도 하였다. 윤은 할머니와 남편의 갈등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요구 수행하였다가 동네어른들의 요구로 이혼 후 1년 반만에 다시 결혼하였다. 할머니는 결혼을 하자 짐을 가지고 조카에게로 갔다. 가서는 조카며느리를 구하였는데 그 며느리를 쫓아내고 다시 며느리를 얻었다.¹⁶⁾

여기에서 사례로 든 것은 바로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주체가 새로운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주체를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과연 전통적인 세대들은 어떠한 주체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윤영숙과 판순의 예를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윤영숙의 예에서 문제의 증상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전통적인 주체로서의 윤영숙의 조모이다. 이 조모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조모가 원하는 것은 바로 집안의 주인이었다. 그녀의 의사에 따라 아들과 며느리의 혼인관계에 개입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녀의 욕망이었다. 그녀에게 타자들의 욕망은 중시되지 않는다. 그녀의 욕망대로 행하는 것이 그녀의 관심사인 것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타자들과의 관계는 상징적 권위에 대한 복종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나타난다. 즉 여기에서의 주체는 대타자의 부름에 의한 위치가 아니라, 바로 그 대타자의 자리에 주체를 등치시킴으로써 드러나는 것이다. 이 역시 욕망하는 주체이다. 그러나 그 주체는 타자들을 구속할 수 믿는 그러한 주체이다.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여성-주체의 욕망이 그 욕망의 실현을 위하여 대타자의 위치를 가리는 방식으로 행동하였다면 이점에서는 전통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주체 마찬가지로 그 욕망의 실현을 위하여 대타자의 위치를 가리는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그 자리를 전복시킨다면 그 받은 교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여성이나 근대적인 신여성이나 마찬가지로 대타자를 위치를 가리고 여성-주체로 행동하였다고

16) 『新女性』, 1931.4, 65쪽.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증상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증상의 출현, 심적 태도의 병리적 현상은 그 대타자가 전통적이건 아니면 근대적 이견 간에 그 대타자가 주체를 부르고 복종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1920~30 년대의 여성 주체의 병리적 양상을 주체가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자아 이상의 설정 부재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안정된 인간관계를 출발로 하는 문화적 자아이상은 그 의미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졌고 새로운 개인주의적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자아이상이 성립하기도 어려웠다. 일제의 지배라는 조건 하에서 민족 공동체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⁷⁾ 이 같은 자아이상의 부재는 사회적으로 각종의 증상들을 폭발적으로 야기시킬 수 있게 된다. 여성-주체의 욕망의 등장과 그 증상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한 국면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등장한 문제들은 주체와 대타자의 부름과 응답이라는 조화된 형식을 발견하기 보다는 그러한 관계의 부재와 동반하여 폭발적으로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그것이 바로 이 시기에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자살의 증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대에 자살이 이루어지는 동기 중에 흔히 등장하는 것은 조혼과 고부간의 갈등이었다. 조혼에 대한 공격은 의학적인 담론으로 뒷받침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담론 중에서 의학적인 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920년대에 있어서 한국여성들의 초경은 대체로 15 세 정도라고 하였으며 결혼은 대체로 16~18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25~6세면 벌써 만혼으로 간주되었다.¹⁸⁾ 그러나 전통적인 구석에서는 아직도 9~10세에 결혼을 시키는 조혼이 있어서 이는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¹⁹⁾

조혼은 법적 혼인 연령이 안된 자녀의 결혼을 의미하는 것인데 1932년경 결혼수의 약 12%가 조혼이었으며 1930년대 들어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음에 우리는 조혼으로 인한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조혼으로 인하여 머느리가 아직 인격적으로 독립하기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지 못하여 시집으로부터의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사례로 제기되었다. 다음의 사례가 그것

17) 권희영, 『한국사와 정신분석』, 집문당(2001), 124~125 쪽

18) 『新女性』, 1924.6, 49쪽.

19) 고성, 「결혼이나? 작난이나?」, 『新女性』, 1924.6, 44~45 쪽

들이다.

- * 평남 양덕군에서 흥매홍이라는 여자는 민며느리로 데려온 12세 된 소녀를 묶기도 하고 악형을 가하다가 탄로가 나서 평양지법에서 징역 몇 달을 살게 되었다.²⁰⁾
- * 광주군 퇴촌면에서 49세 된 김선순은 간난이란 7세 된 아이를 13세 된 아들의 처로 정하기로 하고 데려다가 키우던 중 변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손을 씻지 않고 김치독에 손을 넣어서 김치를 건져먹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간난을 안방에서 마당으로 집어던져서 4시간 후에 사망하게 하였다.²¹⁾
- * 금화에 사는 김생녀라는 여인은 개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12세 된 민며느리를 식도로 두 번이나 배를 찢어서 중상을 입히고 검사국으로 넘어갔다. 김생녀는 자기의 죄를 두려워하여 며느리를 감금하여 외출을 금지시키고 있다가 경찰의 탐지에 걸린 것이다.²²⁾
- * 안변에서 이보녀라는 17세 된 신부가 14세 된 남편을 독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재판을 받았다.²³⁾

이러한 조혼은 그 자체로서 문제이지만, 설사 조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의 강제에 의한 결혼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시기에 이러한 결혼문제가 얼마만큼의 문제를 낳고 또한 갈등을 야기하는지를 다음의 사례들은 잘 보여준다.

- * 전북 김제에서 19세 된 아가씨가 부모의 강제로 결혼을 하여서 살다가 결국은 양젓물을 먹고 자살하였다.²⁴⁾
- * 경남 산청에서 20여 년이나 정 없는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돌아볼까 기다리다가 결국 희망이 없어서 목을 메어서 자살하였다.²⁵⁾

20) 『新女性』, 1926.9, 61쪽.

21) 『新女性』, 1926.10, 9쪽.

22) 『新女性』, 1931.4, 53쪽.

23) 『新女性』, 1933.6, 62쪽.

24) 『新女性』, 1926.7, 61쪽.

25) 『新女性』, 1926.7, 62쪽.

- * 평남 강성에서 3년 전에 시집을 간 아가씨가 남편이 싫어서 친정에 와 있다가 돌아가기가 싫어서 못에 가서 빠져죽었다.²⁶⁾
- * 충남 아산의 김춘심이라는 여인은 생활고를 못 이겨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병까지 얻어서 이들을 등에 업고 딸은 품에 안고서 썸에 빠져 죽었다.²⁷⁾
- * 전북 순창에서 김순효라는 20세 된 부인이 17세 때 13세 먹은 남편에게로 시집왔으나 3년이 지나도록 쓸쓸한 생활을 하다가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²⁸⁾
- * 함남 영흥에서 신랑신부 모두 15세에 결혼 20세 되던 해에 남편이 성불구자인 것을 알게되어 이혼하였다.²⁹⁾

이상과 같은 사례들은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적으로 부모가 결혼을 시킨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이기에 애정이 없고 소박 당하고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자살을 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신여성들의 결혼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일이 흔치않게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사실상 자유연애의 관념이 확산되면서 이혼은 급속히 증가하였다는 것이 당시의 평자들의 논의이다.

앞의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923년의 이혼건수는 8,889 건이며 1932년의 연간 이혼건수는 6,548 건이다. 이혼율은 1932년의 경우 5.14% 라고 하였다. 이혼이 많은 도가 경기, 황해, 평남인 것으로 볼 때 개화적인 지방일수록 이혼율 역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혼연령은 대개결혼 후 5년 정도가 제일 많고 남자 20~24세가 26.6%, 25~29세가 25.3% 를 차지하여 20대의 이혼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다. 여성의 경우에는 20~24세가 31.5%, 15~19세가 23.3%로 10대 이혼도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았다.³⁰⁾ 다음의 이혼의 사례들을 소개하기로 하자.

- * 홍 C S : RM는 15세에 17세난 여자와 “집에서 하라는 대로” 결혼을 하였

26) 『新女性』, 1926.7, 62쪽.

27) 『新女性』, 1926.8, 56쪽.

28) 『新女性』, 1926.9, 61쪽.

29) 『新女性』, 1933.9, 134쪽.

30) 『新女性』, 1933.9, 54~57쪽.

다. 흥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대로 학교에 다녔다 3년이 지나서 아내인李는 어느 날 밤 뜰 가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을 하려 하였다. 흥이 이를 발견하여 소생은 되었다. 그녀는 시집살이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소박덕이 사람을 하는 중에 동네 젊은이를 정부로 맞아서 지냈다. 그러다 동네사람 눈에 들켜서 겁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이에 서약장을 받고는 용서를 하여주었으나 얼마 안 가서 이는 양초를 먹고 자살소동을 벌였다. 시집살이가 재미없고 정부까지 못 만나니 견디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리하여 이혼을 하여 돌려보냈다.³¹⁾

* 박인덕 케이스 : 이화학당 출신 콜롬비아에서 학위를 나치고 귀국하면서 김운호라는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였다. 박인덕 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하였다.³²⁾

여성-주체에게 있어서의 자아이상의 부재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여건으로 인하여 당히는 문제를 견딜 수 없게 한다. 승화의 기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점에 있어서 1920~30년대 한국의 여성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격적이며 억압적인 부모의 세대 산업의 미발달로 인한 노동기회의 상실, 다양한 방면으로의 활동을 위한 여건의 결여, 그리고 종교적인 공동 현상, 바로 이러한 점들은 여성-주체들이 조화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여성 주체들은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단기적으로 극대화하는 방향 즉 죽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하였다. 자살이라는 것이 한 사회적 현상으로 일종의 유행처럼 주목할 만한 현상이 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그것은 대타자 부재, 혹은 폭력적인 대타자에 대응하는 여성 주체의 대응방식이었던 것이다. 전통적인 대타자가 억압적이고 그리하여 강박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면 1920~30년대의 대타자는 오히려 그 부재와 가리움으로 인하여 폭력적인 양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역시 가학적·피학적 주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신세대의 여성-주체에게 가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정 내에서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

31) 『新女性』, 1931.12, 23~24쪽.

32) 『新女性』, 1931.12, 35쪽.

데올로기가 이 같은 폭력성을 위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점에서 한국에서는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혹은 군국주의와 같은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그 일을 감당하지는 않았다. 여성 주체의 등장과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직 사회 전반적인 광범위한 현상이라기 보다는 국지적인 도시적인 현상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920~30년대의 여성 주체의 등장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여성의 등장으로 그 문제의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간과되어 왔다. 1920년대 이래의 민족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거대 이데올로기가 그 문제의 역할을 가리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제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유교적 대타자와 함께 설정된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근대적인 여성-주체로 설정될 때 그 대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설정되고 그 여성-주체와 응답하는 관계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 역시 지속적으로 여성-주체를 지탱하여 온 것은 바로 어머니라는 이상이 아니었는가 생각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여성 어머니는 근대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지속의 성향을 보인다. 역설적이지만 여성 주체의 병리적 현상을 견디게 하고 한국의 여성들을 지탱하여 온 것은 전통적인 어머니, 전통 속에서 증상으로 주어진 그렇지만 증상을 넘어서 성스러움을 획득한 어머니라는 존재인 것이다.³³⁾

V. 맺음말

1920~30년대의 신여성들은 독특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사회적 규범에서 가부장권에 순종하면서 어머니로서의 이상을 사람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던 데서 근대적인 교육을 통하여 자유연애를 통하여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혼할 수 있는 여성 주체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 한국에서의 신여성들의 삶의 조건은 이 같은 근대적인 개인

33) Kwon Hee-young, "The Position of Women and Depression in Traditional Korea",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제2권 제1호 (2000), 83~91 쪽

주의적 삶의 방식이 실현되기에는 너무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관습은 여전히 강하게 이들을 누르고 있었다. 조혼이 여전히 성행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청년들은 아직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였다. 따라서 청년들이 근대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하게 생각하였던 개인주의적인 삶, 근대적인 가족 생활은 그 기본적인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년들은 아무런 경제적 능력도 없이 그리고 사회적 가족적인 인정도 없이 단지 이상적인 꿈으로만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부모세대와의 충돌은 빈번하였으며 불가피하였고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일이 흔하게 되었다. 신여성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사례들은 이같이 꿈과 현실의 차이가 빚어내는 비극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신여성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당시 신여성들의 몇 가지 일화와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당시 신여성들의 문제를 징후적으로 읽어보도록 한다. 1926년 8월 김우진과 현해탄에서 정서를 한 윤심덕은 신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애이상주의의 한 정점을 보여주었다.³⁴⁾ 그렇지만 당시의 논조는 특히 윤심덕에게 곱지 않았다. 그녀가 남자를 갈고 다니며 큰일저지를 여자로 규정되었다. 그녀의 죽음은 정점에서의 허무, 외로움 그리고 자신을 외롭게 만든 이해 받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복수였던 것이다. 그가 추구하던 가치의 무의미성이 현전으로 드러났으며 그녀는 이를 죽음 이외의 방법으로 다스리기가 어려웠다. 김우진과의 동반자살은 그의 죽음을 가장 완벽하게 죽음답게 만드는 것이었다. 1926년 『新女性』

34) 윤심덕은 1923년부터 조선의 성악계를 주름잡은 인물이다. 그녀는 평양출신으로 경성여자고등학교 사범과를 마치고 학교에서 교직에 종사하다가 1923년 봄 동경음악학교 사범과를 졸업하고 돌아왔다. 그녀가 돌아오자 그 때까지 이름을 떨치던 임베세는 초라한 기색이 될 정도였다. 윤심덕은 “조선의 악단을 독차지한 기세로 희끗는 실로 여왕의 위세를 떨치는 일쫓이었다(『新女性』 1923, 10, 34 쪽). 그녀는 조선에 오자마자 서울과 평양 등에서 초청되고 이어서 지방 순회를 다닐 정도로 인기를 한 몸에 모았다. 그녀의 생활은 “多情多恨”으로 표현되었다. 일찍이 그녀는 결혼 생활에 “꿈같은 생활”을 보내다가 부군과 사별하였다. 그녀는 “정신 좋은 듯한 기상이 있어 조금 전두골이 앞으로 볼거졌으며 두 눈은 사람을 잡아끌기도 하고 남을 깔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하였다. 또 지나치게 활달하여 “왈패”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누구를 만나거나 존칭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별로 고려하지 않아서 대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가지게 한다고 하였다. 그녀의 성대는 화려하기는 하지만 그 성량은 풍부하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표정은 좋으면서도 실수가 많았다고 한다. 그녀는 한 음악회에서 비가를 부르면서 웃는 표정을 지어 청중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좋다는 인상을 가지게 하였다고 한 청중은 비판하였다. 『新女性』, 1926.9, 62 쪽

마지막 호에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당시에 동반자살, 혹은 자살은 빈번하였다

앞에서의 박순녀의 사례를 보면 그녀는 이화학당의 재원이었다. 돈 많은 청년에게 시집을 갔으나 그 가정이 몰락하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돌아오면서 바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돌아와서도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남편이 경제력이 없으므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였다.(『新女性』, 1931.12) 박은 결국 4천원이라는 거액을 양육비조로 지급하고 이혼을 하였다. 『新女性』은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는데 남성이 구여성을 이혼한 일은 비밀비재하지만 이것은 역의 경우였다.

결국 연애지상주의, 그리고 경제적 실익과 허영 등 상반되고 모순된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당대 신여성들의 고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신여성이 한국의 여성들에게 타자 즉 거울상이었음과 동시에 증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어준다. 증상이란 무엇인가? 이는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욕망의 억압과 관계되어 있고 그 억압이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주어진 상징적 세계와 충돌하는 가운데 나타난다. 부조화라는 점에서는 상징의 세계와 충돌하지만 깊은 욕망이라는 점에서는 실제로부터 동력을 얻는다. 한국의 신여성들이 상징의 세계와 충돌하는 것은 20~30년대와 같이 유교적 질서와 근대적인 질서가 충돌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새롭게 등장한 여성-주체가 주체의 욕망과 대타자의 욕망을 그 근원에서 조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신여성이 회상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옛것들이 회상되었을 때 고통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박완서의 소설 『엄마의 말뚝』에서 어머니는 가난한 자기 동네 사람중의 한 여자가 자기 딸을 시켜 서답을 빨게 하였을 때 “세상에 맵소사. 더러운 빨래를 백주에 한테서 빼는 것도 망측한데 딸년을 시켜서 빨다니, 상것들 중에서도 상중 못할 바닥 쌍것들이로구냐”라고 하였다.³⁵⁾ 그러나 그 후의 추억에서 어머니는 그 상것 취급하던 이웃들을 “뭘니뭘니해도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국이었지”라고 재평가를 행하였다.³⁶⁾ 자가 자신도 그러한 어머니의 산소를 찾으려 하면서 어머니를 기억한다.³⁷⁾

35) 박완서, 『엄마의 말뚝』, 세계사 (1994), 52쪽

36) 앞의 책, 58쪽

‘신여성’은 자기 것에 대한 경멸과 증오, 그리고 타자에 대한 동경으로 당대의 여성들이 가지게된 거울상이었다. 이 타자를 자기화하였을 때 여성들은 더 이상 이전에 경멸하였던 자기 것을 더 이상 경멸함이 없이 바라보게 될 것이다. 전통이란 것은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통은 본질적으로 기억이다. 기억에 의한 재구성의 국면인 것이다. 근대적인 인간으로서 여성이 그 근대성을 획득하게 될 때 이전의 것은 상상계에서 기억으로 부활된다. 그러나 기억은 이미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담론 속에서의 존재이다. 증상이란 이렇게 본다면 존재와 기억 사이에서 분출되는 것이다. ‘신여성’이 증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여성’ 담론이 기억으로서가 아니라 실재로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여성 담론에서 현 존재는 불쾌한 기억으로 존재하였던 바 이전의 것은 전통이 될 수가 없었다.

미래를 예견하며 달려가는 시대에는 증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가는 시대에는 상징은 가장 온전하게 작동하게 될 것이다. 중세 한국 사람들은 삼대의 이상향을 회상하며 살았기 때문에 유교적 상징은 사회에 굳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이 꿈으로 열려진 후 이 상징은 유효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 미래적 이상으로서의 근대와 버려야 할 현실로서의 상징 사이의 거리에 ‘신여성’은 증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유교문명이 여자에게 준 위치가 흔들리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증상으로서의 ‘신여성’은 현재 사라졌다. 여성은 이미 근대성을 쟁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신여성이었던 어머니가 회상된다. 어머니는 증상(symptôme) 이라기 보다는 *sinthome*³⁸⁾이기 때문이다.

37) “어머니의 성함 중, 이름을 따로 뜻으로 읽어보긴 처음이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부드럽고 나직하게 속삭이며 아직도 내 의식 밑바닥에 응어리진 자책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딸아 괜찮다. 괜찮아. 그까짓 몸 아무데 누우면 어떠냐. 너희들이 마련해준 자리가 곧 내자리인 것을. 생전의 어머니는 깔끔한 대신 차가운 분이어서 한번도 그렇게 곱살맞게 군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생애만큼 먼 옛날의 작명이 나에게 그런 위무를 해주고 있었다.” 앞의 책 131쪽.

38) *symptôme*의 古語로서 그 발음이 聖人을 의미하기도 함

참고문헌

- 고성, 「결혼이나? 작난이나?」, 『신여성』 1924. 6, 44~45 쪽
- 권희영, 『한국사와 정신분석』, 서울 집문당, 2001.
- 박완서, 『화담집』 (한국여성관계자료집-근세편, 이대출판부, 1990).
- 소병, 노승현역, 『노자와 성』, 서울 문학동네 2000.
- 에두아르트 폭스, 이기웅·박종만 역, 『풍속의 역사 1』, 서울 까치 1997.
- 정순목 편저, 『한국유학교육자료집해1』, 서울 학문사, 1983.
- Kwon Hee-young “The Position of Women and Depression in Traditional Korea”, 『라깡과 현대 정신분석』 2-1, 2000, 83~91쪽
- Histoire des femmes : Francoise Thebaud(dir), Le Xxe siecle, Paris : Plon, 1992.

주요어

신여성, 근대성, 병리, 증상